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STAT, ISQOLS,
OECD(2019.9.1.~9.11.)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9. 30(월)

□ 출장목적

-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탐색하고, 정책 혁신 방안 도출에 활용
- 삶의 질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OECD BLI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단위로 측정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OECD Regional Well-being의 최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여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방법 및 한계의 경험적 근거 확보
- 삶의 질, 행복감 측정에서 최근 국제적 동향을 파악

□ 과제명

- [수탁 19-060-00]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 출장기간

- 2019. 9. 1. ~ 2019. 9. 11.

□ 출장지역

- 이탈리아(로마), 스페인(그라나다), 프랑스(파리)

□ 출장자

- 정해식 연구위원, 정홍원 연구위원, 김성아 전문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9/1(일)	이탈리아(로마)			
2019/9/2(월)	이탈리아(로마)	-로마통계청 (ISTAT)	Alessandra Tinto, Fabio Bacchini 등	-이탈리아 지역 단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BES) 개발 및 활용 경험 청취
2019/9/3(화)	이탈리아(로마)	-로마 지방정부	Clementina Villani 등	-이탈리아 지역 단위 삶의 질 측정 지표체계(BES)를 활용한 정책활용 경험 청취
2019/9/4(수)	스페인 (그라나다)			-국가 간 이동(로마-말라가-그라나다)
2019/9/5(목)	스페인 (그라나다)	-세계삶의질학회 -세계행복보고서 연구팀	Shun Wang 등	-삶의 질 관련 국가별 전문가 면담 및 네트워크 구축 -주관적 인식 조사 분석 및 연구 활용 경험 청취
2019/9/6(금)	스페인 (그라나다)	-세계삶의질학회 -주요국 사회조사 관련자		-삶의 질 관련 국가별 전문가 면담 및 네트워크 구축 -세계 행복 트렌드와 지역 단위 접근에의 함의에 대한 전문가 면담
2019/9/7(토)	스페인 (그라나다)	-세계삶의질학회		-삶의 질 관련 국가별 전문가 면담 및 네트워크 구축
2019/9/8(일)	프랑스(파리)			-국가 간 이동(그라나다-말라가-파리)
2019/9/9(월)	프랑스(파리)	-OECD/BLI 연구팀 -OECD/Regional Well-Being 연구팀	Paolo Veneri, Elena Tosetto, Christine Le Thi, Lara Fleischer	-국가 단위 삶의 질 측정과 국제비교 분석 및 지역에서의 함의에 대한 전문가 면담
2019/9/10 (화)	프랑스(파리)	-통계청 OECD 파견팀	김혜련 과장	-지역 삶의질 측정과 국제비교 분석 및 정책활용 경험 청취 -출국
2019/9/11 (수)	대한민국(인천)			-귀국

2 세부 내용

가. 이탈리아 통계청(ISTAT)

1) 개요

① 이탈리아 BES의 현황과 주요 과제

- 일시 및 장소: 2019. 9. 2.(월) 09:30~15:00, 이탈리아 통계청
- Fabio Bacchini, Alessandra Tinto, Miria Savioli, Barbara Baldazzi, Luigi Costanzo, Maria Grazia Calza 등

2) 주요 내용

- 이탈리아 통계청 Division for data analysis, Fabio Bacchini, Maria Grazia Calza
 - 이탈리아 BES는 현재 MAKSWEL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대 중임(10월 3~4일 OECD에서 워크숍 계획).
 - MAKSWELL 프로젝트의 네 가지 동기: GDP를 넘어서는 지표에 대한 관심의 확대, 데이터 가용성의 확대, 방법론의 정교화, GDP 이외 지표와 정책간의 상호작용 확대
 - 이에 따르면 WELL-BEING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EU 28개 국가 중 19개, 웰빙을 정책 사이클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가 11개, 국가단위 이하로 측정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가 12개가 있음. -> MAKSWELL 프로젝트는 각국의 삶의 질 측정 영역 및 지표를 일괄하여 정리 중에 있으므로, 해외 사례 탐색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MAKSWELL의 미션 및 주요 성과

About MAKSWELL

Motivation 1 – Growing attention to the beyond GDP indicators

Motivation 2 – Improving data availability

Motivation 3 – Methodological developments

Motivation 4 – Fostering interaction between beyond GDP indicators and policies

The research work has been organised in 5 scientific Work packages



- 이탈리아 통계청, Alessandra Tinto
 - 이탈리아 BES(benessere, equo, sosteinibile)는 2010년 시작하였고, 2013년 첫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의 분석 측면을 포함하고(well-being), 분배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며(equitable), 적어도 같은 수준의 안녕이 미래 세대에게도 가능하게(sustainable) 하는 것.
 - 과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운영위원회(영역을 구분하고, 지표를 최종 확정), 전문가자문단(잠재적인 지표를 개발), 대중협의를 활용한 참여 프로세스를 포함하였음. ->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BES 지표에 대한 일반의 반발이 크지 않은 이유로 볼 수 있음.

<표> 이탈리아 BES 구성틀

BES	Better life Index	Monitor of well-being
1 Health 2 Education and training 3 Work and life balance 4 Economic wellbeing 5 Social relationships 6 Policy and institutions 7 Security 8 Subjective wellbeing 9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10 Environment 11 Research and innovation 12 Quality of services	1 Housing 2 Income 3 Jobs 4 Community 5 Education 6 Environment 7 Civic Engagement 8 Health 9 Life Satisfaction 10 Safety 11 Work-Life Balance	1 Well-being and material welfare 2 Health 3 Environment 4 Society 5 Security 6 Work and education 7 Housing

* BES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가 포함되고, 여가시간은 주관적 만족의 단계에 포함. 그 외에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and Quality of services가 포함. 특히, 자연경관 및 문화 유산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특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음.

- 지표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what we measure affect what we do)”는 관점에서 접근. 지표 선정의 기준은 Objective+subjective measures, Source=official statistics, Parsimony, Time trends and sub-national analysis, Clear meaning of indicators with respect to well-being,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의 6가지 원칙을 따름.

* 하위 지역 구분(Subnational): 130개 지표중 96%가 Nuts1 단위에서 측정, 95%가 Nuts2 단위에서 측정, 44%가 지역 및 성별 단위에서 측정

* 분배 측면: 59%의 지표가 성별, 49%의 지표가 성 및 연령 집단

에 따라 구분이 가능. 2019년 보고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구분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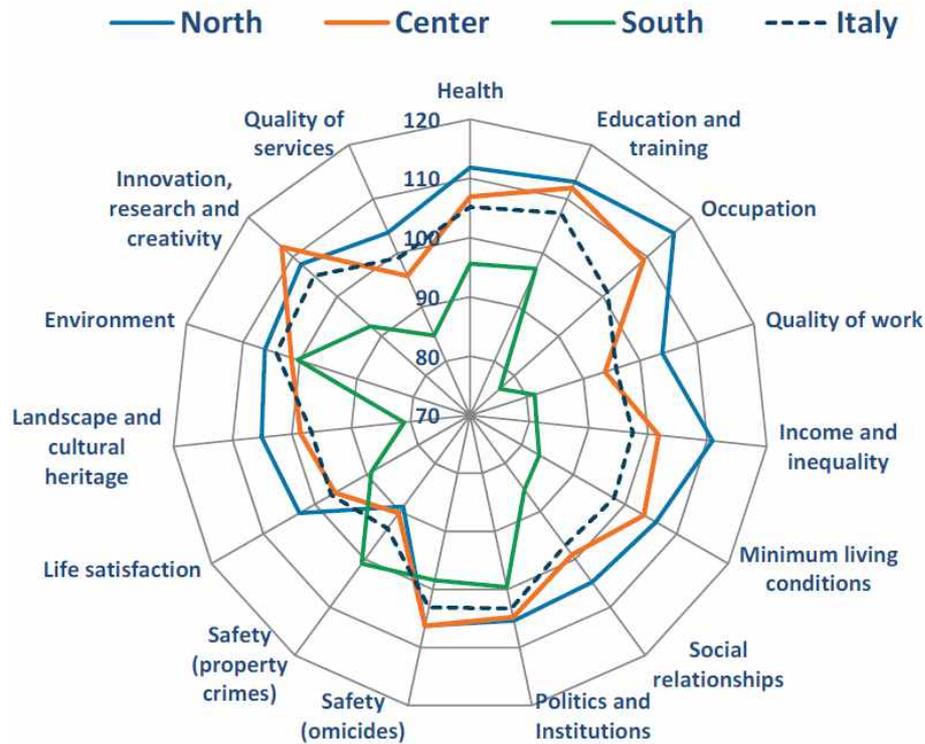
* time trend: 모든 지표는 시계열로 측정되며, 대부분 2004년부터 가능함.

- 향후 계획: BES를 GDP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 통계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환기시키는 것을 검토(분배적 측면), 동향에 대한 강조, 지역과 지방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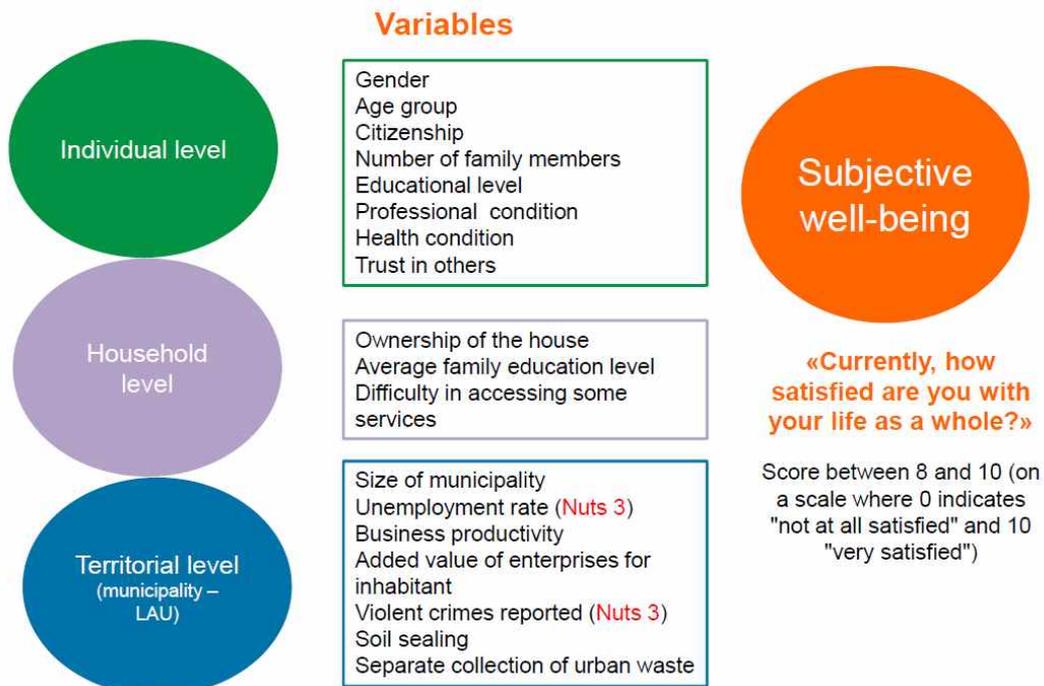
○ 이탈리아 통계청, Miria Savioli

- BES 지표의 변화: 2013년 134개 지표 -> 2018년 130개 지표
-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 새롭게 사용이 가능한 지표 및 자료원의 개발, 계산 방식의 변경에 따라 지표를 변경. 리뷰 과정은 주제별 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이뤄짐.
- 12개 영역의 중요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 각 년도별 보고서는 12개 영역을 각 장으로 하여 작성하고, 2004년 이후 변화를 서술. 한편, 2015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통합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음(단, 12개 영역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지수).
- 영역별 지수를 지역 단위로 제시, NUT2 단위까지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보고서에서는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 예를 들어 상위 20%의 삶의 만족도는 8.9점, 하위 20%는 4.4점.
- 주제 연구: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 도출을 위해 다수준분석을 시도.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그림> BES 지수의 지역간 비교



<그림> 지역단위 주관적 안녕의 결정요인- 개념도



○ 이탈리아 통계청, Barbara Baldazzi, Luigi Costanzo

- 지표 제안은 ISTAT가 100여개, 각 부처, 연구기관 및 중앙은행이 약 30개를 제안
- ISTAT의 데이터는 DW에 있음. 그 외 30개 지표는 국가통계시스템(sistan)에서 활용하는데, 이 경우도 모두 통계청의 주관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QOLs의 경우 통계청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음.
- 국가통계프로그램이 통계청이 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통계품질 관리를 하고 있음.
- BES는 The Commiss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Users(CUIS)가 참여하여 유지(통계청 전문가의 연구성과 공유, BES 영역의 주요 변경에 대한 토론, 제안 및 의견 수집)하고 있음. 또한 국가통계프로그램의 품질관리 서클 중 'QC on Well-being and Sustainability'이 지표에 대한 최종 검증. -> 지표의 수집 및 관리의 각 단계를 공개하고, 다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삶의 질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탈리아 통계청, Maria Pia Sorvillo

- 이탈리아 예산법(2016년 8월 개정)은 웰빙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정책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경향의 비교 및 정책 예측하도록 규정
- * 이에 따라 재무장관은 매년 2개의 리포트를 제출: 4월에는 경제 재정정책계획, 2월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는 웰빙 지표를 정함: 재무장관, 통계청장, 이탈리아중앙은행장, 2명의 전문가
- 지표 선정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민감성, 간명성, 실행가능성, 적시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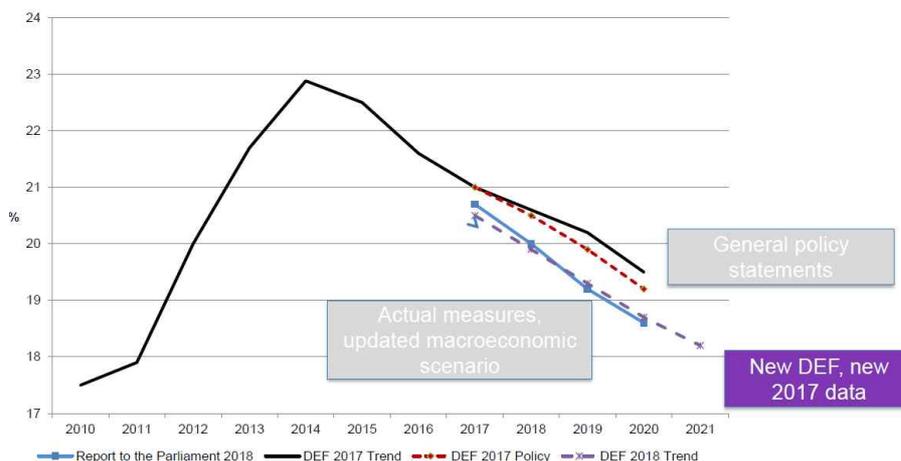
- *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최초로 평균가처분소득(1인당), 소득불평등도(5분위 배율), 비경활률,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발생량(인구당)을 포함

<표> 예산법에서 관리하는 BES 지표

The final list	
Monetary well-being	
1.	Mean adjusted income (per capita)
2.	Income inequality (quintile ratio)
3.	Incidence of absolute poverty
Other aspects of well-being	
4.	Life expectancy in good health (at birth)
5.	Overweight and obesity
6.	Early school leavers
7.	Non-participation in employment
8.	Employment rate of women aged 25-49 with/without preschool children
9.	Victims of predatory crimes (robberies, burglaries and mugging)
10.	Mean length of civil justice trials
11.	CO ₂ and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12.	Illegal Building

<그림> 비경활률의 경향 및 예측치

Non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rates) – Italy 2010-2021



- 이후 목표: 웰빙 지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 안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경제적 변수를 개발하여 새로운 경제통계 모델을 개발하는 것, 정책적 수요에 맞춰 적시에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 BES 지표를 지역 단위의 정책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나. 이탈리아 정책 활용: 로마 정부의 경험

1) 개요

① 이탈리아 BES의 현황과 주요 과제

- 일시 및 장소: 2019. 9. 3.(화) 09:30~12:00, 이탈리아 통계청
- Stefania Taralli, Clementina Villani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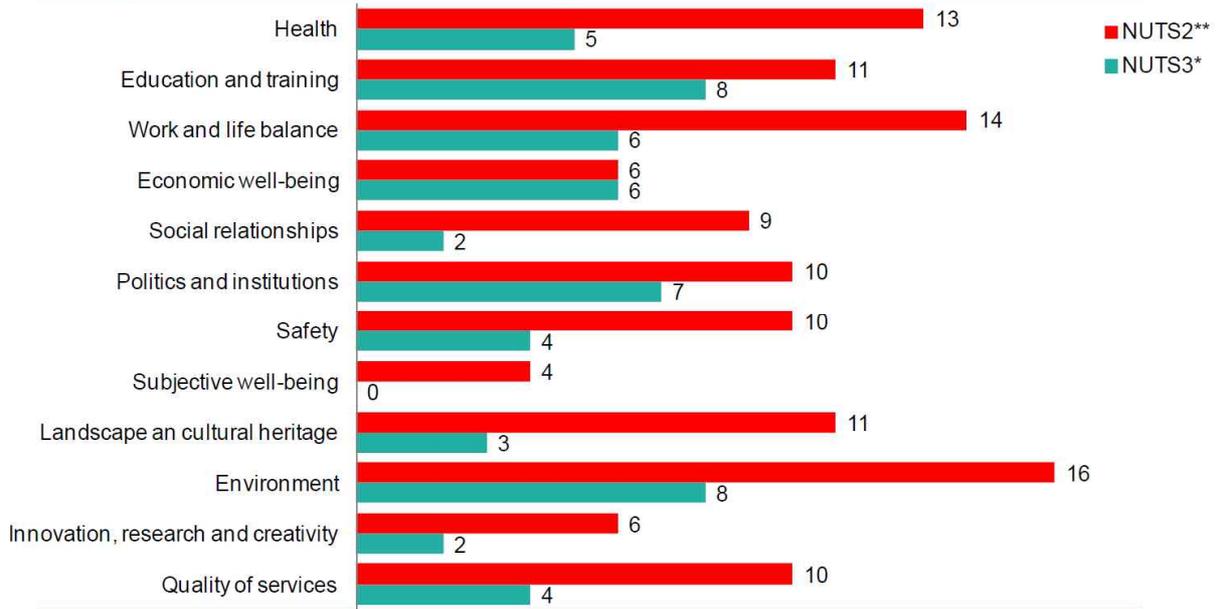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 이탈리아 통계청, Stefania Taralli

- 지역 수준에서는 2018년 6월 14일, Nuts3 단위의 61개 지표 제시하였고, 이탈리아 대도시 단위에서는 55개 지표를 제시
- * 이때는 프락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프락시 지표는 모두 11개, 로컬 지표는 모두 12개임.
- 지역단위에서 생산이 안되는 지표는 주관적 안녕 영역의 지표, 개인수준에서 다차원적인 측면의 지표, 인식 등에 대한 지표, 개인 수준의 분배 관련 지표, 국민계정에서 산출되는 지표임.
- 서베이 자료 중에서는 노동력 조사만이 Nuts3 단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행정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념 정의 등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음.

<그림> 이탈리아 BES의 지역단위 생산 동향

Comparison between Bes regional and local indicators



(*) Including proxy and "local" indicators

(**) Bes 2018 report



- 로컬지표: 무엇을 로컬 지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 EU-SILC를 이용해서 소규모 지역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임.

* 또한 다양한 자료 소스를 이용해서 통합된 개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

<표> local indicators

Bes domain	Indicator	Related function (main)	Local Policy Level
Social relationships	Fully accessible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chool network planning	Regions
		School building management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Politics and institutions	Taxes and tributes collection capacity of local Institutions (2 indicators)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Municipalities	Provinces and MCs
		Financial administration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Safety	Road mortality in extra-urban areas	Planning of transport services Roads building and management	Regions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Quality of services	Extra-regional hospital migration	Territorial planning	Provinces and MCs
		Health services organization	Regions

Bes domain	Indicator	Policy sector	Local policy Level
Work and life balance	Work days paid in annual average (workers and employees)	Labour market	Regions
		Local economic development	Provinces and MCs
Economic well-being	Per capita annual salary of workers and employees	Labour market	Regions
		Local economic development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Economic well-being	Per capita annual pension amount	Social policies	Regions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Social policies	Regions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Politics and institutions	Voters turnout (regional elections)		Regions
	Municipal councilors women	Institutional and General affairs	Provinces and MCs Municipalities
	Municipal councilors under 40s		Municipalities

- 로마 지방정부, Clementina Villani
 - 2016~2021년 계획에서 로마시민의 삶의 질 기준 및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에 로마시의 BES를 개발
 - * 2019년 현재 12개 영역에서 109개 지표를 사용하며, 이중 64개는 BES 지표, 13개는 수정된 BES 지표, 32개는 추가된 지표임.
 - BES 지표를 행정 계획에 포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정책 간의 직간접적 영향력 및 복합적 인과관계를 상징하는 연관표를 작성하고 있음.

<그림> 정책연관성 table

BES indicator domains	Programme lines 2016-2021				
	5. Territorial Protection				
1.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Infant mortality	Mortality from cancer		
10. Environment	Dispersion from municipal water mains	Separate collection of urban waste	Protected areas	Polluting cars	Electric, gas or bi-fuel cars
12. Quality of services	Density of photovoltaic installations		Charging columns for electric cars		

다. ISQOLS 학회 17차 컨퍼런스

- 컨퍼런스 주제는 ‘Happiness in a Multicultural World’
- 이하는 학회 주요 세션 내용임
 - Stefano Bartolini, ‘Manifesto for happiness. Shifting society from money to well-being’
 - : 소득 증가는 행복 증가에 기여. 그렇지만 부정적 요인에 의해 상쇄. 대표적인 것이 1) 관계(relationship), 2) 비교, 3) 물질주의의 추구(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미국

46, 중국 68, 인도 60, 4) 고독

- : “social quality”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질을 낮추는 성장이 문제
- : Defensive Growth, 행복을 줄이는 감소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
- Martine Durand, ‘How quality of life metrics should be used in policies’
- : 그간 OECD BLI의 추진 동기 및 성과 소개, 그리고 OECD의 이후 전략 소개
-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 수단을 소개. 예산(뉴질랜드 사례), 성과 프레임의 작성(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핀란드, 유엔-SDG), 새로운 제도 또는 구조 설정(UAE의 행복청),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라. 주요 미팅 - 선 왕, 세계 삶의 질 학회

- 디스토피아(dystopia):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캔트릴사다리 (cantril ladder)로 측정하는 국가별 행복 수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대성, 부패인식 등을 사용하고 있음. 디스토피아는 비교대상 국가의 설명변수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대입하여 국가별 최악의 상태를 가정함. 그리고 국가별 설명변수 관측치를 투입해 행복 설명요인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가 간 행복의 불평등 존재 확인과 설명요인 발견
- 기후(미세먼지 등): 인구집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이가 있는 여성의 행복 수준이 미세먼지 농도에 취약함.
- 사회적 자본: 기존 사회적 자본의 주된 지표이나 관측하기 어려

운 사회적 관계 이외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측가능한 지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를 포함하는 다수의 사회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간 비교를 통해 SWB를 설명하는 공통요인을 발견하고, 문화(culture)적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탈리아 등의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국가의 역할이 동아시아인의 인식과 상이하여, 영향력 패턴이 상이할 수 있음.
- 또한, 남미에서 세계행복보고서 등에서 제안되는 행복의 추정치에 비해 실제 행복값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음(Mariano Rojas, 2019).
- 이러한 남미의 현상은 행복의 추정치에 비해 실제 행복값이 낮은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의 현상과 반대임.
- 최근 상대소득가설과 관련해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의 설정에 대한 질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독일의 한 연구팀(Jantsch, 2019)에서는 본인과 비교를 하는 대상의 이름을 쓰게 하고, 대상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하는 서베이조사를 시도한 바 있음.
- 사회조사자료를 생산하며 인식을 공유하는 연구자 간 향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함.

마. OECD- Regional Well-Being 연구팀/ OECD BLI 연구팀

Paolo Veneri, Elena Tosetto, Christine Le Thi, Lara Fleischer

1) 개요

① OECD Regional Well-being의 향후 계획

- 일시 및 장소: 2019. 9. 9.(월) 14:00~15:00, OECD

- Paolo Veneri

② OECD 'how's life'의 새로운 지표 제안 및 수정 과정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9. 9. 9.(월) 15:00~16:00, OECD

- Elena Tosetto, Christine Le Thi, Lara Fleischer

③ OECD 김혜련 과장님

- 일시 및 장소: 2019. 9. 10.(화) 10:00~12:00, OECD

2) 주요 내용

○ OECD Regional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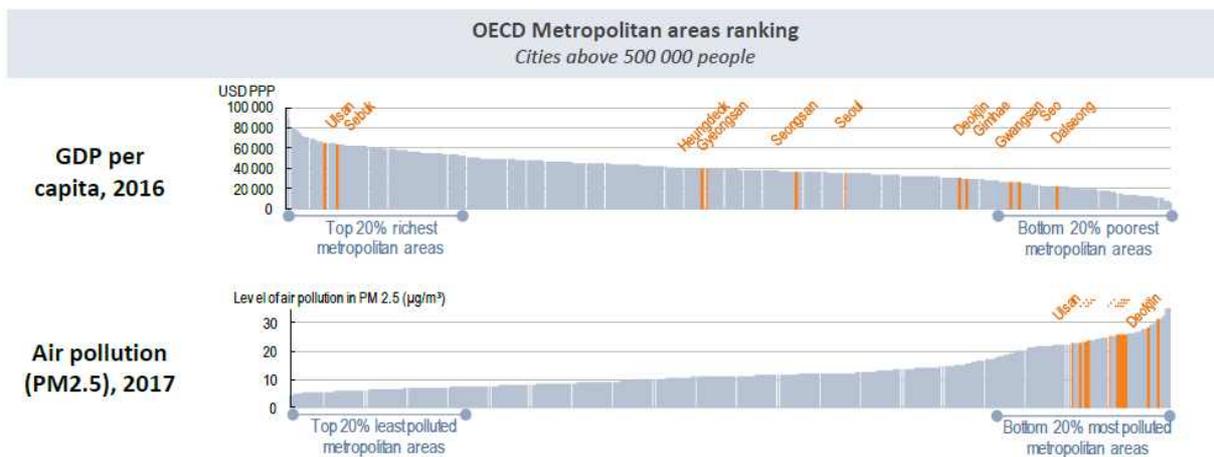
- TL3에서는 별도로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중에 있음. 2021년 즈음에 공개할 예정.



* 여기서 TL3, Nuts 등은 OECD 지역 통계의 Territorial grids를 의미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Country	Territorial level 2	Territorial level 3
Israel	Districts (6)	Districts (6)
Italy	Regioni (21)	Province (110)
Japan	Groups of prefectures(10)	Prefectures (47)
Korea	Regions (7)	Special city,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 (17)
Latvia	Region (1)	Statistical regions (6)
Luxembourg	State (1)	State (1)

- > 이것은 현재 region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BLI를 더 하위 지역 단위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이때는 개별 시 단위(city level)과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단위를 고려하고 있음. 이때의 단위는 시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음. OECD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생활권은 다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음.



- * 이러한 규모의 지역 단위에서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tax data를 이용해서, 지역적(spatial)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임.
- ** 이러한 형태의 시 단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함.
- > 이러한 지역 단위 자료 측정의 지표, 방법론 등이 사전에 공유된다면 한국에서 지역단위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 외 다른 도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한편 이때의 지표는 주로 지역단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 local 단위에서 의미가 있는 지표는,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의 지표여야 할 것.
- * 지역 단위에서 합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함. 사람이 사는 곳(work and travel)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OECD도 인위적인 지역 단위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ECD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urban area를 정리하고 있음. 5만명 이상이 살고,, 50% 이상의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특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도시로 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은 2012년 정립하였고, UN의 이와 관련한 개념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정리하는 중이라고 함.
- 최근에 멕시코의 경우에는 OECD가 직접 지역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음.
- OECD는 SDG를 이용한 wellbeing tool을 개발 중.

○ OECD BLI

- 최근에 공개된 수정 버전은 OECD BLI 지표가 아니라 Dash-board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BLI는 비교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 나라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dash-board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함.
- 배경: 1) OECD가 다른 나라의 페이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여기서 OECD의 pillar(이들은 이것을 필라라고 표현하였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음. 2) 영국 맥그리거 교수의 프레임워크를 활용. 3) SDG의 톨도 고려함.

- OECD의 지표 제시는 show case라고 생각하고 있음. 어떤 아이 디얼한 지표 체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함. 즉,, OECD는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자산, 순자산의 변화(2019년 BLI 지표 중)와 같이 영역과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보고서에서 많은 내용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새로운 지표 제안이 가능한지 data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음.

○ OECD, 통계청 김혜련 과장님, OECD 통계의 최근 특징

- OECD는 최근에 segregation을 강조하고 있음. 남성/여성, 아동/청년/노인, 장애인/비장애인, 도시/농촌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생산해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기존 자료보다 segregation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OECD가 지역단위 소득수준 분석 등에서 행정자료 등의 활용 경험을 높인다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tax data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음.